

[실무수습-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사람들 속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즐거움.”

박 성 환

- 1984년 6월 생
- 대구 시지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법학부 졸업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3기생



I.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의 실무수습과정

2012년 11월입니다. 매일 아침, 점점 더 두꺼워지는 옷을 볼 때 마다 올 한해도 저물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면서 바쁘게 보내왔던 지난 시간을 이 기회를 빌어 잠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2년 전 이 맘 때쯤 면접을 보면서 고사실 창밖으로 떨어지고 있던 낙엽들이 여전히 생생히 기억납니다. 입학식을 하던 날 그 벅찼던 감정과 첫 수업을 들어갈 때의 긴장감과 설렘이 바로 어제 같기만 합니다. 정신없이 수업을 따라가고 과제를 완성해 나가다보니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났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을 땐, 처음으로 학교를 벗어난 교육, 즉 실무수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무수습은 학교 내 교과과정으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생생한 현장을 경

협할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학교에서는 최소한 한 군데 이상 80시간의 이수시간만을 요구할 뿐, 얼마나 많은 곳을 갔다 올지는 학생 개개인에게 달려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1학년을 마치고 그 해 겨울부터 실무수습을 가서 다음 해 여름에도 그리고 다시 겨울까지 방학마다 여러 군데를 갔다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2학년 1학기에 뜨는 실무수습 공고를 보고, 그 해 여름 한번, 실무수습을 갔다 옵니다. 실무수습을 제공하는 기관은 다양하며 선발인원도 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전기 후기 각 1명 두 명을 선발했으며 전기는 7월 후기는 8월에 실무수습을 받게 됩니다. 선발기준은 학교 성적이며 수습을 받을 희망 지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실무수습 첫날을 공단본부에서 이론교육을 받고난 후 각 지부로 가서 현장 실무수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은 각 지부 및 출장소에서 바로 실무수습이 시작됩니다.

II. 법률구조공단 실무수습 커리큘럼

법률구조공단 실무수습 커리큘럼은 실무수습 항목표에 따르면 크게 이론교육, 민사계열실무, 형사계열실무, 법률상담 4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민사계열실무와 형사계열실무는 각 기록 검토 후 서면작성과 법정방청으로 이루어져 있고, 법률상담은 면접상담과 사이버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커리큘럼은 어떤 수업처럼 그 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방문하시는 민원인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확장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민원인들과의 면접상담이 법률구조공단에서의 실무수습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1. 법률상담

(1) 법률구조공단을 찾는 사람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을 통한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적인 기관입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문제로든지 사이버, 전화, 면접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무료로 소송 수행 등 권리실현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저소득자, 농어업종사자, 형사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정식 업무시작시간인 9시가 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은행 창구의 풍경처럼 대

기순번을 뽑고 간의식 벤치에 앉아 기다립니다.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에는 변호사 3명, 상담업무를 주로 하시는 직원 4명, 일반 업무를 주로 하시는 직원 2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법률적 지원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인지를 판단하고, 사건이 접수되어 소송이 위임되면 소속 변호사를 통해 법률구조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방문하시는 민원인들과의 법률상담이 되는 것입니다. 표정만큼이나 어떤 문제들을 안고 왔는지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그분들과의 대면은 제겐 낯설고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률구조공단의 분주한 풍경을 바라보며 사건을 글이 아닌 그 직접적 당사자를 통해 경험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2) 모든 사건은 실제 사건이며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

법학 책 속에는 많은 판례들이 나옵니다. 책의 구성 목차에 따라 그 주제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은 이리하다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 감과 울이 있는데 병이 어떻게 했고 그래서 감은 무어라 주장하고 울이 무어라 항변한다는 식으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잊기도 하는데, 그 등장인물은 바로 나와 눈을 맞춘 이 사람이었고 그 사실관계는 바로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실무수습 첫날은 법률상담을 하시는 변호사님 옆에서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지, 법률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사건은 어떤 사건들인지를 교육받고 이튿날부터 직접 법률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한 분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올까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모르는 것을 물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고민하셨던 문제는 국민연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법률구조공단을 찾으신 이유는 이혼한 할머니와의 사이에서 연금분할로 문제가 있어서였습니다. 청색 모자와 회색의 반팔 와이셔츠만큼 평범한 모습의 할아버지는 결혼생활에서부터 이혼과정, 자제분들 이야기, 지금의 상황 등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통해 말씀 내용 중에서 답변에 필요한 부분을 메모하고 국민연금법의 관련 조문을 찾고, 연금분할 청구권에 대한 판례의 내용은 어떠한지를 검색하는 과정이 대화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무수습 기간 동안 약 30여분과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한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 그분들은 자신들의 이야기에 공감해줄 자기편을 찾고 있었습니다. 해결

의 실마리는 범조문을 찾고 판례를 검색해서 이것은 범조문과 판례가 이러니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불합리하다면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에 공감했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해결해볼 방안을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제가 공부하는 이유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3) 상담 과정

상담을 하게 되면 사건이 간단히 법률적 조언으로 끝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법률구조공단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법률구조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습생이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법률적 조언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한정됩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엔 가정폭력의 피해자나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원한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구조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접수절차나 구조사업의 진행을 위해 정식 직원분들에게 인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구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구조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예측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황한 이야기 속에서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또는 간접적인 사실들을 추려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2. 사이버상담

사이버상담은 법률구조공단을 직접 찾으시는 분들 이 외 이메일,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을 말합니다. 사이버상담은 면전에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좀 더 문제를 꼼꼼하게 살필 수 있고 검토도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총 6건에 대한 질문을 검토하고 답변을 작성했는데 그 질문들을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을 했는데 회사가 망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나왔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시비가 붙어 서로 싸웠는데 처벌을 받느냐, 다른 사람한테서 받아야 할 돈을 나에게 달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터넷상 악의적인 댓글들을 고발하려고 수집했는데 이러한 수집이 불법인가. 옆집에서 불이 나서 옮겨 붙었다 어떻게 배상받나, 옆집 건물이 본인 소유 토지 위를 일부 점용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등등의 질문이었습니다. 겨우 6개의 사건들이었지만 다양했고 생동감 넘쳤으며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분쟁은 필연적인 듯 했습니다. 이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결

국 법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쟁해결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 그 외 수습과정

(1) 이론교육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실무수습 첫날 공단본부에서 이론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론교육은 주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처리하는 사건 위주의 기본적 지식과 절차 및 각종 서식 양식에 대한 교육이 중심이 됩니다. 집행보전절차나 강제집행절차, 가사사건, 임금 및 임대차 관련 사건, 손해배상사건 및 형사사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제가 배정받은 곳은 제주지부였기 때문에 별도의 이론교육은 없었고 관련 자료를 받아 실무수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방문하시는 민원인들과의 상담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찾는 분들이 꺼내놓으시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 이론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론교육 자료들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수습생들에 대한 지침서로서 많은 고민과 열정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 서면작성

법률문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꼽으라면 단연 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제출로 그들 사이의 분쟁은 법원이라는 공적인 기관의 판단을 받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변호사의 역할 중 전통적으로 그 중심이 되었던 것이 의뢰인의 청구권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고 강제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그 집행을 받아내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시작인 소장은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법률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실무수습을 받는 동안 총 2건의 소장을 작성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상담내역이나 각종 진술, 서류, 사진 등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법률구조공단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사건으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사건과 손해배상 청구사건이었습니다. 작성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고, 또한 그 틀이 갖추어져 관용적으로 쓰여 지는 문언이나 청구권의 존재를 명확하게 주장하기 위해 문장을 다듬고 간결하게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과오소송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피해자의 신체감정촉탁신청서와 기소를 당한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피고인의

견서,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 볼 수 있었습니다.

(3) 지도관 사건 법정방청

지도관님을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법정 방청을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민사계열 한번 형사계열 한번, 총 두 번의 기회를 가졌는데 그 중 민사계열은 가사사건이었습니다. 가사사건의 중심은 보통 이혼과 그에 부수하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 또는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실제 당사자가 법정에서 나와 법관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펼치는 주장은 정제된 언어로 정교하게 구성된 문장이 아니라 우리들이 평소에 얘기하듯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질 때도 있고, 아니다 싶을 땐 작아지는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기본구성 단위라 할 수 있는 한 가정이 쪼개어지려할 때의 그 다툼은 안타깝고도 어렵지만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과정이었고, 당사자들은 그러한 모습을 법정에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법관은 많은 사건을 다루어 본 듯 능숙하게 진행했고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타이르는 듯 한 모습으로 당사자들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딱딱한 법리싸움만이 있을 줄 알았던 제 예측과는 많이 달랐고 결국 법도 사람의 마음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III. 법률구조공단 실무수습이 남긴 의미

1. 공감하려는 자세

실무수습을 나가기 전까지는 법학은 언제나 책속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관념 인줄로만 알았습니다. 왜 그러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책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 그렇다는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법률구조공단 실무수습을 나가서 법률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땐 명확한 해답이 내려지지 않은 실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아직 불완전한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대답을 해 줄 수 있을 까하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선부른 걱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박한 법률지식 이전에 결국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공감하고 그 사건에 빠져들어 모든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꺼내놓은 것들은 모두 자신들이 현재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였고, 그 생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 가장 비밀스러운 고민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상대

방에 대한 신뢰를 보인다는 것이고 그 신뢰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야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법적인 판단을 하기 이전에 정확한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하는 자세는 변호사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2. 해결하려는 의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면 이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할 단계입니다. 상대방과의 고민을 단지 공유하는 것이라면 친구사이에서도 가능합니다. 법률가라면 고민을 듣고 난후 그 불합리를 고쳐나가기 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결 방안의 모색에 전제가 되는 것은 물론 해박한 법률지식입니다. 책을 읽고 법조문을 살피고 판례들을 검색하고, 새로운 주장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불합리를 고쳐나가기 위해서였다는 당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동적인 자세의 공부방법에서 적극적인 자세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실제 우리 이웃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들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은 당연하다지만, 이 공부라는 것이 결코 끝이 날 수 없다는 것임을, 우리 사회가 존재하고 그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있는 한 분쟁은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법학에 대한 공부의지를 다시금 일으킬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